

또래 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의 외현화 문제 발달궤적과 부모의 역할: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이 경 은¹⁾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전공

이 주 리²⁾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본 연구에서는 4년 종단자료를 통해 다음의 세 가지를 분석하였다. 첫째,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외현화 문제의 발달궤적에서 개인차가 나타나는지 규명하였다. 둘째, 부모요인이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셋째, 이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이 매개변수가 되어 외현화 문제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총 504명(남 302명, 여 202명)으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초 4 패널 데이터 1-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참여자들은 1차년도인 2004년도에 초등학교 4학년생들이었고, 2007년에는 중학교 1학년생이 되었다. 데이터는 AMOS 7.0을 사용하여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외현화 문제의 발달궤적은 모두 유의한 개인차가 있었다. 둘째, 부모요인은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초기치와 기울기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은 부모요인과 외현화 문제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수가 되어 외현화 문제의 발달궤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주요어 : 또래괴롭힘, 자아존중감, 외현화 문제, 부모의 역할

1)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전공 박사수료

2) 교신저자 :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E-mail : julie@cau.ac.kr)

I. 서 론

최근 집단따돌림, 폭력, 협박, 성희롱 및 성폭행 등의 문제들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격히 증가되고 그 정도도 한층 심각해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현상이 점점 저연령화 되어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발달 과정에서 이러한 피해를 경험한 아동들은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경험하게 되며, 연령이 어릴수록 그 후유증이 크다.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들은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뿐 아니라(김희화, 2002; Troop-Gordon & Ladd, 2005), 특히 이들이 다시 일탈행동, 공격성, 분노, 품행문제 등 외현화 문제(박순진, 2005; 신현숙, 이해경, 이경성, 2006; Ladd & Troop-Gordon, 2003; Schwartz, Mcfadyen-Ketchum, Dodge, Pettit, & Bates, 1998; Snyder, Brooker, Patrick, Snyder, Schrepferman, & Stoolmiller, 2003)를 경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심각하다. 얼마 전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한 아동의 사례가 이를 잘 반영한다. 폭력적인 아버지 이외에도 수년간 동네 불량학생들에게 폭력과 협박을 당해온 12살 초등학생이 칼과 망치를 이용하여 자신의 또래들을 위협하였고, 심지어 방화를 시도하기까지 했다(SBS ‘금출동 SOS 24’, 2008년 6월 24일 방송).

이처럼 또래괴롭힘과 아동의 부적응과의 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내연구들은 표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특정한 어느 한 시기에서만 측정된 횡단연구라는 한계를 가진다. 종단연구라 하더라도 두 시기만을 측정한다면, 시간의 흐

름에 따라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없다. 이는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잠재성장모형은 특히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진다(홍세희,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년 종단자료(조사시작 시점 초 4학년생)를 활용하여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외현화 문제의 발달궤적에서 개인차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이것이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이다. 국내에서는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외현화 문제의 발달궤적에 대한 개인차를 살펴본 연구가 극히 드물지만, 국외 연구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또래로부터 따돌림과 괴롭힘, 폭행 등을 당한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발달궤적을 살펴본 Troop-Gordon과 Ladd(2005)의 연구에서 지각된 사회적 수용과 전반적 자아존중감으로 측정한 아동의 ‘사회적 자기수용(social self-acceptance)’이 유의한 개인차를 보인 바 있다. 외현화 문제에 대한 유의한 개인차도 시사되는데, 인종차별로 인한 괴롭힘을 겪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발달궤적을 추적한 Brody 등(2006)의 연구에서 문제행동의 유의한 개인차가 나타났다.

한편, 이렇게 개인차가 있다면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모든 아동들이 동일하게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보면 또래괴롭힘과 같은 다양한 부정적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자아존중감이 덜 손상되고 외현화 문제를 덜 경험

하게 되는 아동들이 있다. 그 보호요인으로서는 부모변인이 언급된다. 최미경과 도현심(2000)의 연구에서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남학생이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이루고 있다면 전반적인 자아가치감이 보다 높게 나타나 또래괴롭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어머니 애착이 완화시켰다. 국외의 Brody, Dorsey, Forehand와 Armistead(2006)은 10-12세의 African American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아동들이 인종차별로 괴롭힘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부모가 양육적이고 관여적이라면 그들의品行문제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외현화 문제에 대한 부모의 역할은 Allen, Porter, McFarland, McElhaney와 Marsh(2007)의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아버지와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초기 청소년들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외현화 문제가 점점 심각해졌으나, 아버지와 안정된 애착관계의 초기 청소년들은 연령이 높아져도 외현화 문제의 수준이 증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들이라 하더라도 부모와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거나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바람직하다면 아동의 부적응은 이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람직한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하여 선행연구들은 온정 혹은 지지, 그리고 행동에 대한 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유형으로 보고한 바 있다(Brody et al., 2002; Simons, Johnson, Beaman, Conger & Whitbeck, 1996). 이는 국내외 여러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4번의 측정시기를 통해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Kim과 Cicchetti(2006)의 연구에서 부모의 신체적 학대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초기치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부모양육행동으로서 지지와 감독을 측정한 Bamaca, Umana-Taylor, Shin과 Alfaro(2005)의 연구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지지하고, 자녀의 행동에 대해 적절한 감독을 수행할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졌다. Wang, Pomerantz와 Chen(2007)은 부모 요인과 평균 나이 12세인 아동의 정서적 기능과의 관계에 대하여 미국과 중국 간 비교 연구를 통해 보고하였는데, 미국과 중국 모두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자율성을 지지받는 아동들일수록 자아존중감을 포함하는 안녕감(well-being) 수준이 높아졌다. 국내 연구들에서도 일치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나누는 자녀들일수록 그들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졌으며(김태현, 이영자, 2005; 신효식, 김근화, 2004; 이희자, 김경원, 2000)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거나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고 있는 청소년들 역시 모두 자아존중감이 높았다(김희수, 2005; 이경남, 2002). 감독 측면에서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관리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나유미, 임연진, 2003). 이와 같은 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부모의 애착 및 행동에 대한 감독은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 외현화와 같은 행동문제는 선행요인으로 이러한 자아존중감과 같은 인지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외현화 문제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근의 국내외 연구들에서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희화, 2001; 이경님, 2002; Grych, Harold, & Miles, 2003; Buehler, Lange, & Franck, 2007). 11-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Grych, Harold 와 Miles(2003)의 연구에서 아동의 '자기비난'은 1년 후 아동의 공격성 및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아동보고와 부모보고 모두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Buehler, Lange와 Franck(2007)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보고되어 그들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자기 비난'은 1년 후 아동의 외현화 문제 수준을 높였다. 국내 김희화(2001)의 연구에서도 가정과 관련된 자아존중감은 중학교 1, 2학년 초기 청소년들의 비행을 지속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볼 때 부모에게 애착을 느끼고 부모로부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받고 있다면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어 이들이 다시 외현화 문제를 겪게 되는 악순환의 경로는 약화될 가능성이 시사된다. 실제로, 이경님(2002)은 남학생의 비행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 애착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도 높아지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충동을 통제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이 향상되어 비행을 억제하는 경로를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하여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부모요인,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를 그림 1과 같이 다변량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부모애착과 부모감독 등 부모요인이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고, 이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이 매개변수가 되어 외현화 문제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가정이다. 이 과정을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이다. 추가적으로 이 과정에서 2, 3, 4차년도에 또래괴롭힘 경험을 각각 시간의존적 변수로 설정하여 통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를 기준으로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그러므로, 1차년도에 또래괴롭힘을 경험했던 아동들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를 경험하는지의 유무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시간 의존적 변수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변수로서, 이 변수에서 종속변수로 가는 경로를 설정하면 시간의존적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종속변수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홍세희, 2008). 따라서, 이를 통해 부모요인,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외현화 문제와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횡단 연구의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고,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들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외현화 문제의 발달궤적은 개인차가 나타나는가?

둘째, 부모요인은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부모요인과 외현화 문제의 발달궤적 간 관계를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이 매개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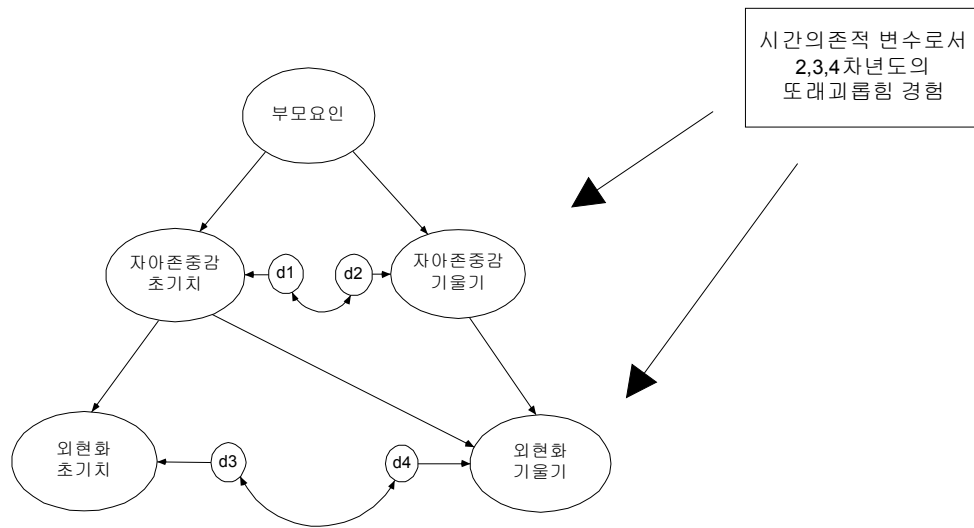


그림 1.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연구모형. 도식의 간명화를 위해 측정변인들을 생략함.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초 4 패널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였다. 이 패널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동일한 대상을 반복적으로 추적한 종단자료로, 2004년도에 1차년도 조사를 시작하여 현재 2007년 4차년도 자료까지 구성되어 있다. 연구대상자들은 총 2844명(남 1524명, 여 1320명)으로, 2004년도에 초등학교 4학년이었으며 2007년에는 중학교 1학년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844명의 원자료 중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또래괴롭힘의 경험을 묻는 6문항(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하기, 헐뜯당하기, 집단따돌림당하기, 심하게 맞기, 성희롱(성폭행)당하기,

돈이나 물건 강제로 빼앗기기)의 응답을 근거로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없다.’와 ‘있다’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적어도 1가지 이상의 피해를 경험하였다면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으로 간주하였다.

응답이 불성실한 결측치를 제외하였고, Z 점수가 3이상인 극단치를 제외하여(배병렬, 2007) 최종 연구대상은 총 504명(남 302명, 여 202명)이었다. 그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은 1차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1세가 87.7%(442명)이었고 12세 12.3%(62명)이었다. 부모님과 가족 구성형태는 친양부모 가정 95.6%(479명)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외 한부모 4%(20명), 계부모 0.4%(2명) 등이었다. 아버지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6.4%(32명), 고졸 49.2%(245명), 전문대졸 8.0%(40명), 대졸 32.1%(160명), 대학원 이상 4.2%(21명) 등이었

고, 어머니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8.3%(41명), 고졸 63.6%(313명), 전문대졸 7.3%(36명), 대졸 20.1%(99명), 대학원 이상 0.6%(3명) 이었다. 아버지 직업은 사무직 28.6%(141명),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20.1%(99명),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2.6%(62명), 판매 종사자 12.2%(60명) 등이었으며, 어머니 직업은 무직(가정주부)이 46.2%(231명), 판매 종사자 18.2%(91명), 서비스 종사자 9.6%(48명) 등이었다. 가구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이하 8.9%(44명), 101-200만원 28.8%(142명), 201-300만원 32.9%(163명), 301-400만원 16%(79명), 401만원 이상 13.4%(66명)이었다.

2. 측정 도구

부모요인

본 연구에서 부모요인은 ‘부모애착’과 ‘부모 감독’으로 구성하였다. 그 구체적인 문항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부모애착은 6문항의 총점을, 부모감독은 4문항의 총점을 각각 사용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였다. Cronbach's α 는 부모애착 .744, 부모감독

표 1. 부모요인 문항

	문항 내용
부모 애착	1)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2)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3)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4)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 하는 편이다. 5)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6)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부모 감독	1)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2)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3)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4)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대부분 알고 계신다.

표 2. 자아존중감 문항

	문항 내용
자아존중감	1)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 나는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역코딩). 5)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역코딩). 6)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역코딩).

.769, 전체 .799였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에 사용된 문항은 2와 같으며, 6 문항의 총점이 사용되었다. Likert 5점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였다.

Cronbach's α 는 2004년(.728), 2005년(.789), 2006년(.725), 2007년(.777)이었다.

외현화 문제

외현화 문제는 표 3과 같이 '본인일탈경험' 15문항과 '공격성' 6문항인 총 21문항의 총점을 사용하였다.

본인일탈경험은 '전혀 없다(1점)'와 '있다(2점)'로 구성되었으며, 공격성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Cronbach's α 는 2004년(일탈 .656 /공격성 .703 /전체 .668), 2005년(일탈 .655 /공격성 .787 /전체 .726), 2006년(일탈 .715 / 공격성 .809 / 전체 .752), 2007년(일탈 .791 /공격성 .785 /전체 .756)이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관계가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이 매개변수가 되어 외현화 문제의 발달궤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AMOS 7.0을 사용하여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본 연구에서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발달궤적을 도출하기에 적합한 분석 방법이며, 그러한 종속변수

표 3. 외현화 문항

	문항 내용
본인 일탈경험	1) 일부러 버스나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고 타기 2) 선생님 앞에서 소리 지르며 대들기 3) 시험시간에 킨닝(부정행위)하기 4) 학교에 연락하지 않고 결석하기 5) 학용품비, 준비물 비 다른데 사용하기 6) 다른 친구를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7) 다른 친구를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8) 다른 친구를 헐박(시키는 데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음)하기 9) 야한 만화/사진/동영상/영화 등 음란물 보기 10) 술 마시기 11) 담배 피우기 12) 다른 사람(부모형제가 아닌)심하게 때리기 13)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뺑 뜯기) 14)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 15) 가출하기
공격성	1) 나는 아주 약이 오르면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다. 2) 누군가 나를 때린다면 나도 그 사람을 때린다. 3)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싸운다. 4)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다. 5) 나는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다. 6) 나는 내 자신이 금방 터질 것 같은 화약과 같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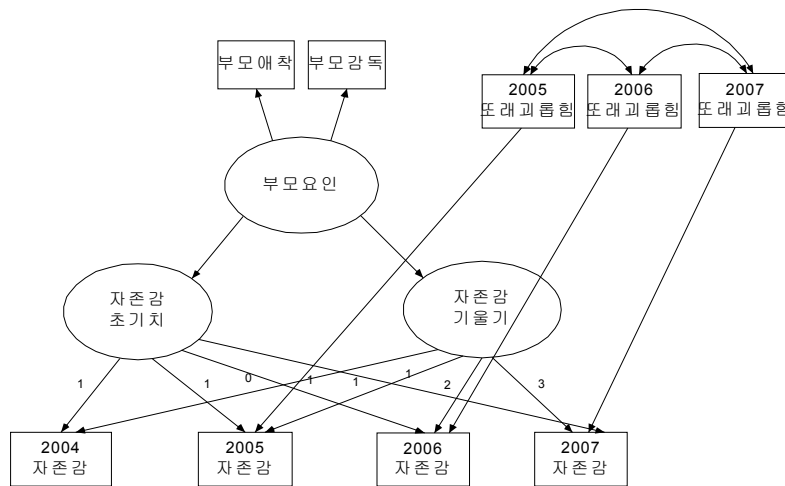


그림 2. 분석 모델 1: 부모요인과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

주. 도식의 간명화를 위해 그림에는 표기하지 않았으나, 자아존중감의 초기치와 기울기 간 서로 상관을 가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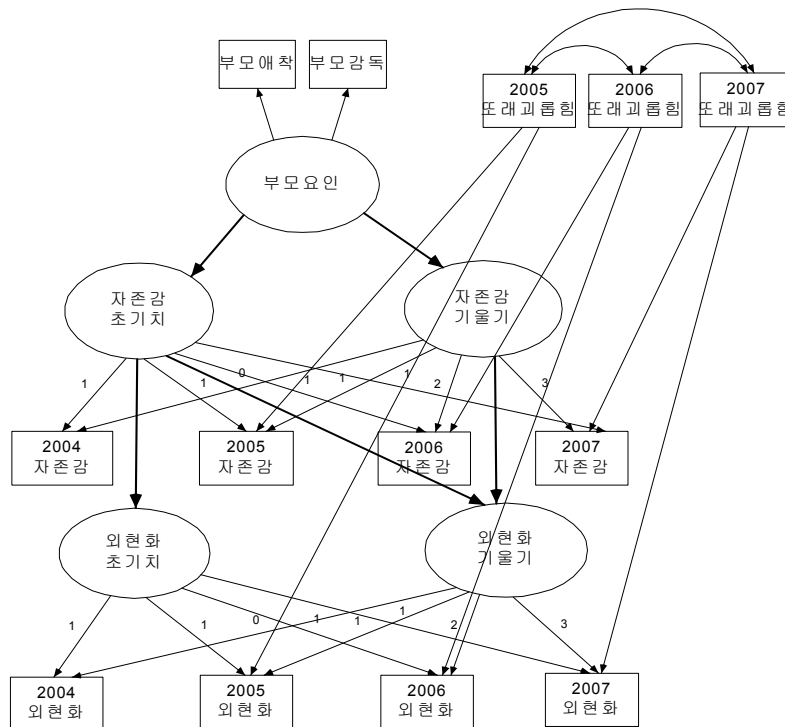


그림 3. 분석 모델 2: 부모요인과 자아존중감 및 외현화의 발달궤적

주 1. 도식의 간명화를 위해 그림에는 표기하지 않았으나, 자아존중감의 초기치와 기울기, 외현화의 초기치와 기울기는 각각 서로 상관을 가정함.

주 2. 도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편의적으로 요인 간 추정 경로는 굵게 표시함.

의 변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설명하는 예측변수를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통계 분석 방법과 달리 초기치와 변화율의 변량을 통해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홍세희, 2008).

본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매개변수를 분석한 Troop-Gordon & Ladd(2005)의 연구에 따라 2가지 분석 모델이 검증되었다. 첫째, 그림 2와 같이 예측변인인 부모요인이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둘째, 그림 3과 같이, 그림 2의 모델에 외현화 문제를 추가하여 자아존중감이 부모요인과 외현화 문제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기울기의 변화에 따라 선형변화모형, 제곱변화모형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외현화 문제의 기울기는 선행연구에 따라 각각 0, 1, 2, 3으로 부여되어 선형변화모형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대상과 동일하게 조사시작 시점인 1차년도에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5번의 측정시기를 통해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한 Troop-Gordon과 Ladd(2005)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의 선형변화모형이 우수한 적합도로 유의하게 검증되었으며, 역시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10-12세의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Brody 등(2006)의 5년 종단연구(3번 측정)에서 아동의 품행문제와 같은 외현화 증상도 선형변화모형으로 검증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그림 2 및 그림 3과 같이 잠재요인인 자아존중감 및 외현화 문제의 기울기에서 각 시기별 측정변수로 가는 각각의 경로는 2004년부터 차례로 0, 1, 2, 3으로

고정하였다. 자아존중감 및 외현화 문제의 초기치에서 각 시기별 측정변수로 가는 경로는 각각 모두 1로 고정되었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서 외생변수의 초기치는 내생변수의 초기치와 기울기에 모두 연결이 되지만, 외생변수의 기울기는 내생변수의 기울기에만 연결이 된다(Brody et al.,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그림 3의 분석모델에서 자아존중감의 초기치에서는 외현화 문제의 초기치와 기울기로 가는 경로가 모두 설정되었지만, 자아존중감의 기울기에서는 외현화 문제의 기울기로만 가는 경로가 설정되었다. 추가적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데이터 중 1차년도를 기준으로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을 표본으로 추출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2(2005년), 3(2006년), 4차년도(2007년)의 또래괴롭힘을 통제하고자 2, 3, 4차년도의 또래괴롭힘 경험을 각각 시간 의존적 변수로 설정하였다. 만약 이들의 2, 3, 4차년도 또래괴롭힘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각 시기에서의 피해경험이 하나의 ‘사건’이 되어 각 시기에서의 자아존중감 및 외현화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부모요인과 자아존중감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

따라서, 그림 2 및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 3, 4차년도의 또래괴롭힘 경험에서 각각 2, 3, 4차년도 자아존중감 및 외현화 문제로 가는 경로를 설정하여 이를 통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또래 괴롭힘 경험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를 기준으로 최소 1가지 이상의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을 추출하였다. 종류별 또래괴롭힘의 경험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심한 놀림 혹은 조롱당하기’가 28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집단따돌림(왕따) 당하기’ 149명, ‘협박당하기’ 144명, ‘돈, 물건 강제로 빼앗기기’ 125명이었

다. 그 외에 ‘심하게 맞기(폭행)’ 85명, ‘성희롱(성폭행) 당하기’ 31명이었다.

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치가 표 5를 통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왜도와 첨도를 통해 변수들의 정규성을 검토하였는데, 모든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미만, 10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이 만족되었다(Kline, 2005; 강상경, 좌현숙, 2007에서 재인용).

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잠재성장모형의 분석에 앞서,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는 표 6을 통해 제시되었다. 우선, 부모 요인인 부모애착 및 부

표 4. 또래 괴롭힘 종류별 피해 경험 빈도

피해 종류	빈도(명)
심한 놀림 혹은 조롱 당하기	286
집단따돌림(왕따) 당하기	149
협박 당하기	144
돈, 물건 강제로 빼앗기기	125
심하게 맞기(폭행)	85
성희롱(성폭행) 당하기	31

표 5.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치

	최소(최대) 반응값	M	SD	왜도 (표준오차)	첨도 (표준오차)
2004부모애착	6(30)	21.82	4.47	-.346(.109)	-.091(.217)
2004부모감독	4(20)	13.26	3.88	-.257(.109)	-.372(.217)
2004자존감	6(30)	19.87	4.11	-.055(.109)	.204(.217)
2005자존감	6(30)	19.75	4.32	.142(.109)	.046(.217)
2006자존감	8(30)	19.67	4.03	.361(.109)	.259(.217)
2007자존감	6(30)	20.09	4.19	.128(.109)	.167(.217)
2004외현화	21(49)	31.80	5.13	.296(.109)	.006(.217)
2005외현화	21(48)	31.41	5.35	.559(.109)	.118(.217)
2006외현화	21(52)	32.03	5.47	.418(.109)	.178(.217)
2007외현화	21(51)	31.99	5.48	.556(.109)	.687(.217)

표 6.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1.2004 애착	2.2004 감독	3.2004 자존감	4.2005 자존감	5.2006 자존감	6.2007 자존감	7.2004 외현화	8.2005 외현화	9.2006 외현화	10.2007 외현화
1	1									
2	.425**	1								
3	.304**	.234**	1							
4	.208**	.139**	.427**	1						
5	.190**	.180**	.385**	.424**	1					
6	.141**	.099*	.247**	.253**	.433**	1				
7	-.149**	-.096*	-.251**	-.155**	-.121**	-.114*	1			
8	-.022	-.094*	-.141**	-.234**	-.196**	-.178**	.316**	1		
9	.001	-.042	-.108*	-.161**	-.289**	-.167**	.268**	.449**	1	
10	-.069	-.093*	-.097*	-.132**	-.211**	-.278**	.184**	.390**	.473**	1

* $p < .05$, ** $p < .01$

모감독과 각 시기별 자아존중감 간 관계를 살펴보면,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2004 부모감독과 2007 자아존중감 간의 정적 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든 관계에서 $p < .01$ 수준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각 시기별 자아존중감과 외현화 문제 간의 관계에서는 2004 자아존중감과 2006 외현화 문제, 2004 자아존중감과 2007 외현화 문제, 그리고 2004 외현화와 2007 자아존중감 간의 부적 관계가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그 이외의 관계에서는 모두 $p < .01$ 수준의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애착 및 부모감독과 각 시기별 외현화 문제와의 관계는 대부분 유의하지 않거나 상관이 .10 이하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모형에서와 같이 부모애착 및 부모감독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시간의존적 변수로 설정

된 2005, 2006, 2007년의 또래괴롭힘 경험과 관련 변수들 간 상관관계가 모두 유의하여 이들을 이후의 잠재성장모형 분석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05 피해와 2005 자아존중감, 2005 피해와 2005 외현화 문제, 2006 피해와 2006 자아존중감, 2006 피해와 2006 외현화 문제 및 2007 피해와 2007 자아존중감은 모두 $p < .01$ 수준에서 유의함, 2007 피해와 2007 외현화 문제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함).

4. 잠재성장모형 분석

우선, 그림 4의 분석모형을 통해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외현화 문제의 발달궤적에 있어 개인차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자료분석 부분에서 언급하였듯, Troop-Gordon 과 Ladd(2005)와 Brody 등(2006)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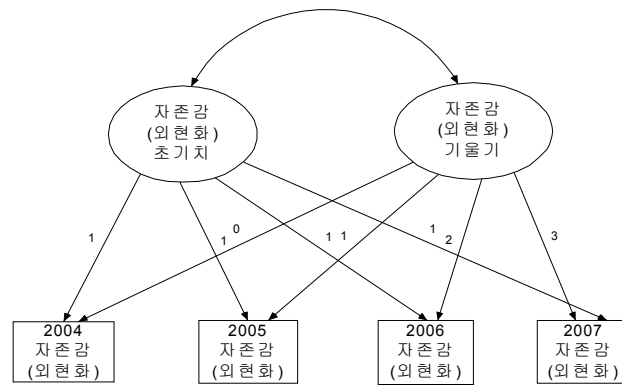


그림 4.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외현화 문제의 발달계적 분석 모형

선행연구를 근거로 각 모델은 선형변화모형으로서 기울기가 각각 0, 1, 2, 3으로 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잠재성장모형은 모두 ML(최대우도법)로 분석되었다. 이는 표 5에서 살펴보았듯, 정규성이 만족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

첫째,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계적을 검증한 모델은, $\chi^2 = 7.223$, $df=3$, $p=.065$, $NFI=.979$, $CFI=.988$, $RMSEA=.053$ 으로 나타나 매우 우수한 모델로 판단되었다. 초기치의 변량이 9.527($p<.001$), 기울기의 변량이 1.011($p<.001$)로서 모두 유의하여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초기치와 기울기는 모두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울기와 초기치 간의 상관은 -.548로서 부적으로 매우 유의하여($p<.001$) 초기치 수준이 높으면 기울기는 더디게 변화하고, 반면 초기치 수준이 낮으면 기울기는 빠르게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의 외현화 문제 발달계적을 검증한 모델은, $\chi^2 = 9.835$, $df=3$, $p=.020$, $NFI=.970$, $CFI=.979$,

$RMSEA=.067$ 으로 나타나, 역시 우수한 모델로 판단되었다. 초기치의 변량이 10.441($p<.001$), 기울기의 변량이 1.739($p<.001$)로서 모두 유의하여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의 외현화 문제의 초기치와 기울기도 자아존중감의 발달계적과 마찬가지로 모두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울기와 초기치 간의 상관은 -.295로서 부적으로 유의하여($p=.059$) 초기치 수준이 높으면 기울기는 더디게 변화하고, 반면 초기치 수준이 낮으면 기울기는 빠르게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부모요인이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계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그림 5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제시된 경로계수는 모두 표준화계수이다. 분석 모델은 $\chi^2 = 32.652$, $df=23$, $p=.087$, $NFI=.947$, $CFI=.983$, $RMSEA=.029$ 로 나타나 매우 우수하게 판단되었다. 부모요인을 측정하는 관측변수들의 준거변수는 부모감독이었으며, 관측변수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2, 3, 4차년도인 2005, 2006, 2007년 또래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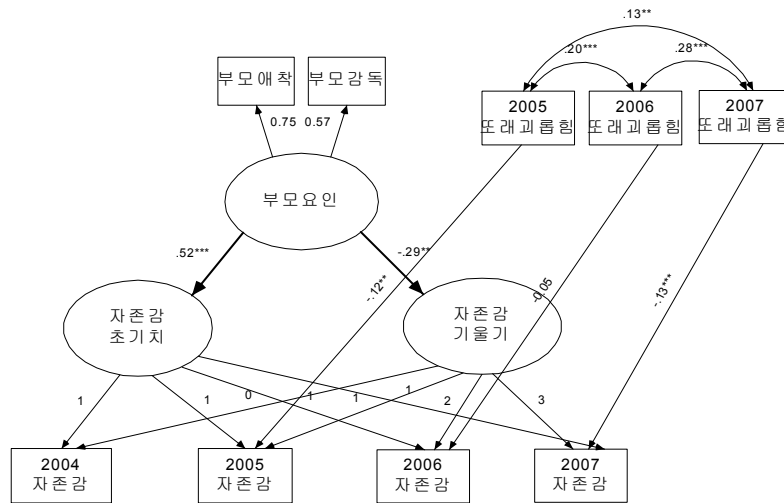


그림 5. 부모요인이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

chi-square = 32.652, df=23, p=.087, NFI=.947, CFI=.983, RMSEA=.029, N=504

** $p < .01$, *** $p < .001$

주. 도식의 간명화를 위해 자아존중감의 초기치와 기율기 간 상관은 도식에서 생략되었으나, 실제로는 상관을 가정하였음.

롭힘이 2005, 2006, 2007년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모두 통제된 후, 부모요인은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초기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52$, $p<.001$), 기율기에도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beta=-.29$, $p<.01$). 부모요인으로서 부모애착과 부모감독이 높을수록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초기치 수준은 높아졌으며, 부모애착과 부모감독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기율기의 증가속도가 느려졌다. 이처럼 부모요인과 자아존중감의 기율기 간 부적 관계가 나타난 것은, 앞서 그림 4에서 살펴보았듯 자아존중감의 초기치와 기율기 간의 상관관계가 부적으로 매우 유의하여 부모요인이 높은 아동은 초기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율기의 변화량이 무더진 것으로 보

인다.

마지막으로, 부모요인과 외현화 문제의 발달궤적 간 관계를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이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앞서 표 6의 상관관계에서 나타났듯, 부모요인과 외현화 문제 간 상관관계가 대부분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 1에서 제안된 연구모형에 따라 부모요인에서 외현화 문제의 발달궤적으로 가는 경로는 설정되지 않았으며, 부모요인에서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으로 가는 경로를 설정하고,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에서 외현화 문제의 발달궤적으로 가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6에 제시되었으며, 경로계수는 모두 표준화계수이다. 분석 모델은 chi-square= 92.553, df=56, $p=.002$, NFI=.916, CFI=.964, RMSEA=.036으로 나타나 우수하게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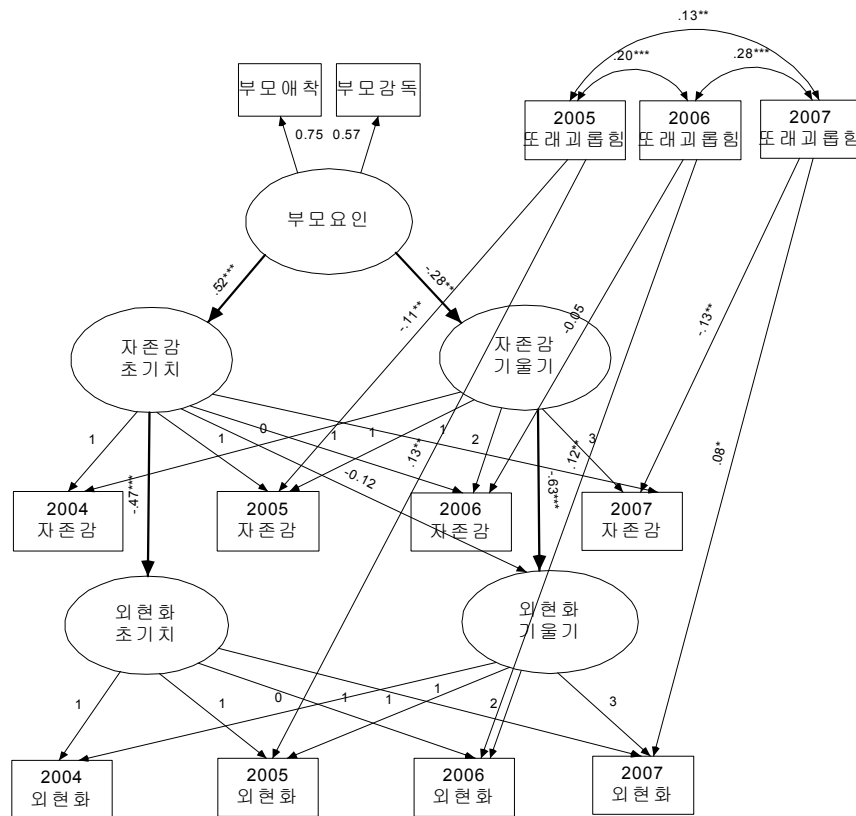


그림 6. 부모요인과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의 외현화 문제 발달궤적 간 관계에 대한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의 매개효과

chi-square = 92.553, df=56, p=.002, NFI=.916, CFI=.964, RMSEA=.036, N=504

* $p < .05$, ** $p < .01$, *** $p < .001$

주 1. 도식의 간명화를 위해 자아존중감(외현화)의 초기치와 기울기 간 상관은 도식에서 생략되었으나, 실제로는 상관을 가정하였음.

주 2. 잠재요인 간 유의한 경로만 굵은 선으로 표기하였음.

2, 3, 4차년도인 2005, 2006, 2007년 또래괴롭힘이 2005, 2006, 2007년 자아존중감과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모두 통제한 후, 부모요인은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초기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 = .52$, $p < .001$), 기울기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beta = -.28$, $p < .01$). 그리고, 부모요인

의 유의한 영향을 받은 자아존중감이 다시 외현화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자아존중감의 초기치는 외현화 문제의 초기치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beta = -.47$, $p < .001$), 자아존중감의 기울기도 외현화 문제의 기울기에 부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beta = -.63$, $p < .001$). 즉, 자아존중감의 초기치가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의 초기치는 낮아졌으며, 자아존중감의 기울기 증가량이 커질수록 외현화 문제의 기울기 증가량은 줄어들었다.

이처럼, 부모요인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조사시작 시점에 초등학교 4학년생이었던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4년 종단 자료를 사용하여 다음의 두 가지를 분석하였다. 첫째,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외현화 문제의 발달궤적을 추적하여 개인차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개인차가 나타난다면 어떠한 아동들이 자아존중감이 덜 손상되고 외현화 문제를 덜 경험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에 따라 부모요인을 예측변수로 설정하여 살펴보았다. 이 때에 자아존중감과 같은 인지적 특성은 외현화 문제를 유발하는 선행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부모와의 관계가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본 후, 이 자아존중감이 부모요인과 외현화 문제간의 매개변수가 되어 외현화 문제의 발달궤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외현화 문제의 발달궤적은 모두 유의한 개인차가 있었다. 이는 또래괴롭힘을 경험

한 아동들이 모두 자아존중감의 손상 및 외현화 문제를 겪는다는 것은 아니며, 개인에 따라 보다 심각하게 부적응을 경험할 수도 있고 덜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환경 혹은 자원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의 적응을 돕는 요인을 변별할 수 있다면 그들을 위한 개입이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비행 피해를 경험한 아동들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김희화, 2002), 이들이 다시 일탈, 공격성, 분노, 품행문제 등의 외현화 문제를 겪게 된다(박순진, 2005; 신현숙, 이해경, 이경성, 2006; Ladd & Troop-Gordon, 2003; Schwartz et al., 1998; Snyder et al., 2003)는 선행연구들이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했음을 지적해준다.

둘째, 부모요인은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초기치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 부모요인은 부모 애착과 부모감독으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또래괴롭힘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부모와의 관계가 안정적이고 부모로부터 지지와 수용을 받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모가 감독을 적절히 할수록 자아존중감은 덜 손상되어 부모가 보호요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또래괴롭힘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어머니와의 애착관계가 안정적이라면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자아가치감이 높게 나타난 최미경과 도현심(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외에도 부모의 애착 혹은 감독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많은 선행연구들(김희수, 2005; 나유미, 임연진,

2003; 이경남, 2002; Bamaca et al., 2005; Kim & Cicchetti, 2006; Wang, Pomerantz, & Chen, 2007)과도 일치한다.

반면, 부모요인은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기울기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부모애착과 부모감독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기울기의 증가속도가 느려지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요인과 자아존중감 간의 정적인 관계를 보고하는 수많은 선행연구들을 고려해 볼 때, 이를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고 있고 부모로부터 적절한 감독을 받고 있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느리게 증가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처럼 부모요인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기울기 간 부적 관계가 나타난 것에 대해 ‘ceiling effect’를 적용해 볼 수 있다(Brody et al., 2006). 이에 대해 국내 정익중(2007)의 연구에서 ‘천장효과’라고 명명된 바 있다. 종속변수 최대값의 한계로 인해 기울기의 증가율이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부모애착과 부모감독이 높은 아동들은 자아존중감의 초기치가 높았기 때문에 그만큼 기울기의 증가 수준에 제한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자아존중감의 초기치와 기울기 간의 상관관계가 부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는 결과에서도 뒷받침된다. 초기치 수준이 높으면 기울기 변화량은 줄어들고, 반면 초기치 수준이 낮으면 그만큼 기울기가 변화할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기울기의 증가가 커지는 것이다.

셋째, 이렇게 부모요인의 영향을 받은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은 매개변수가 되어 외현화 문제의 발달궤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먼저, 자아존중감의 초기치는 외현화 문제의 초

기치에 유의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래괴롭힘을 경험하였다 하더라도 부모애착과 감독이 높으면 자아존중감도 덜 손상되고 이에 따라 외현화 문제도 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어머니 애착이 자아존중감을 높여 이로 인해 충동통제 능력이 향상되어 비행을 억제하게 된다는 이경남(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의 기울기는 외현화 문제의 기울기에 유의하게 부적으로 영향을 미쳐 자아존중감의 기울기 증가량이 커질수록 외현화 문제의 기울기 증가량은 줄어들었다. 자아존중감이 크게 향상될수록 외현화 문제는 그만큼 감소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외현화 문제를 덜 경험하게 된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김희화, 2001; Grych, Harold, & Miles, 2003; Buehler, Lange, & Franck, 2007).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기울기 증가량이 커질수록 외현화 문제의 기울기 증가량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동안 횡단연구를 통해 밝혀져 온 외현화 문제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개입이 상당히 중요하며 실질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보다 명백히 입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하게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들의 집단이라 할지라도 자아존중감과 외현화 문제의 발달궤적은 개인차가 있으며 그 개인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가 근원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부모애착과 부모감독이 높은 아동은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외현화 문제까지 낮아진다. 따라서,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온정과 수용과 지지를 제공해야 할 뿐 아니라 아동의 행동에 대해 적절한 감독을 행함으로써 아동이 부모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로 인해 가정 밖에서 또래괴롭힘을 경험하여 자아존중감에 손상을 받은 아동들이 자신도 사랑과 관심을 받는 가치로운 존재라고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 밖에서 받은 심리적 손상이 부모로 인해 보완되어 부모가 보호요인이 된다.

둘째, 부모의 유의한 영향을 받은 자아존중감은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의 외현화 문제의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이 오히려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발달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기울기 증가량이 클수록 외현화 문제의 기울기 증가량은 줄어들었으므로 이들의 자아존중감 증진은 성장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은 또래나 선배들로부터 놀림과 헐뜯,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기거나 심지어 폭행 및 성희롱 혹은 성폭행까지 당하여 위축되거나 자아개념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손상되었을 수 있다.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사춘기에 이러한 부적응을 겪게 된다면 그 후유증은 이후의 삶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의 외현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의 심리 사회적 부적응에 부모요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는 연구들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4년간의 종단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횡단연구의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고 이들의 발달과정에 대한 추적을 통해 개인차를 밝혔으며,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으로서 부모와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외현화 문제와의 관계를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서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는 것은 발달과정의 아동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종단연구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 각 시기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종속변수의 변화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시간의 존적 변수로서 2, 3, 4차년도에 또래괴롭힘 경험을 모두 통제하여 예측변인과 종속변인 간 보다 명확한 관계를 분석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또래괴롭힘의 경험에 대해 최소 1가지 이상의 피해를 경험하였다면 모두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집단으로 간주하여 또래괴롭힘에 대한 정도를 고려하지 않았다. 피해경험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우 심각한 또래괴롭힘을 경험하였다면 본 연구에서처럼 부모요인이 보호요인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피해 경험 정도를 세분화 하여 경미한 피해와 심각한 피해 집단을 구분하여 비교분석 해볼 수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 분석을 실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통해 보면 외현화 문제에 있어 남녀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시사된다. Grych, Harold와 Miles(2003)의 연구에서

지각된 위협감은 여학생이 아닌 남학생의 외현화 증상만을 예측하였는데 그들에 따르면, 남학생은 관계 중심적인 여학생에 비해 행동 중심으로 사회화되기 때문에 부정적 사건을 경험할 때 남학생은 좀 더 행동으로 표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중 집단 분석을 통해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중 집단 분석은 비표준화 계수를 기준으로 집단 간 비교를 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급간이 혼재된 척도로 인해 표준화 계수를 사용해야 했기에 이러한 다중 집단 분석을 실시할 수 없었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셋째,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들은 조사시작시점에 초등학교 4학년생들이었고 4년 뒤 중학교 1학년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행되는 전이기를 포함한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발달단계의 관점에서 일탈의 종류가 다소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외현화 문제 측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초·중 전이기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상경, 좌현숙 (2007). 지역사회정신보건 재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자기효능감 및 삶의 질-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3, 185-213.
- 김태현, 이영자 (200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가족기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3), 173-193.
- 김희수 (2005).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결정과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3(3), 63-88.
- 김희화 (2001). 청소년의 초기 비행과 지속적 비행에 대한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8(1), 143-162.
- 김희화 (2002). 청소년의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친구 지지의 영향. 청소년학연구, 40(9), 47-61.
- 나유미, 임연진 (2003).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관리와 청소년의 일탈행동,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4(3), 87-98.
- 박순진 (2005). 청소년 폭력 비행에 있어서 가해-피해의 연계. 피해자학연구, 13(2), 241-269.
- 배병렬 (2007). Amos 7에 의한 구조방정식 모델링-원리와 실제-. 서울: 도서출판 청람
- 신현숙, 이해경, 이경성(2006). 성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에 따른 비행 청소년의 MMPI-A 프로파일 비교. 청소년학연구, 13(4), 197-223.
- 신효식, 김근화 (2004). 중학생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한국가정과학회지, 7(2), 47-58.
- 이경남 (2002). 청소년의 애착, 자아존중감 및 충동통제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8), 191-206.
- 이희자, 김경원 (2000).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9(3), 283-295.

- 정익중 (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과정과 예측요인: 잠재성장모형과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 4회 한국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89-121.
- 최미경, 도현심 (2000).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기종단적 연구: 애착 및 우정관계의 역할. 아동학회지, 21(3), 85-105.
- 홍세희 (2008).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세미나 II 자료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SBS “긴급출동 SOS 24: 폭력이 낳은 12살 악동” 2008년 6월 24일 방송.
- Allen, J. P., Porter, M., McFarland, C., McElhaney, K. B., & Marsh, P. (2007). The relation of attachment security to adolescents' paternal and peer relation, depression, and externaliz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78(4), 1222-1239.
- Bamaca, M. Y., Umana-Taylor, A. J., Shin, N., & Alfaro, E. C. (2005). Latino adolescents' perception of parenting behaviors and self-esteem: Examining the role of neighborhood risk. *Family Relations*, 54, 621-632.
- Brody, G. H., Chen, Y. F., Murry, V. M., Ge, X., Simons, R. L., Gibbons, F. X., Gerrard, M., & Cultrona, C. E. (2006).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the adjustment of African American youths: A five-year lonitudinal analysis with contextual moderation effects. *Child Development*, 77(5), 1170-1189.
- Brody, G. H., Dorsey, S., Forehand, R., & Armistead, L. (2002). Unique and protective contribution of parenting and classroom processes to the adjustment of African American children living in single-parent families. *Child Development*, 73(1), 274-286.
- Buehler, C., Lange, G., & Franck, K. L. (2007). Adolescents' cognitive and emotional responses to marital hostility. *Child Development*, 78(3), 775-789.
- Grych, J. H., Harold, G. T., & Miles, C. J. (2003). A prospective investigation of appraisals as mediators of the link between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4(4), 1176-1193.
- Kim, J. & Cicchetti, D. (2006). Longitudinal trajectories of self-system processe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maltreated and nonmaltreat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77(3), 624-639.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2nd Ed.). NY: The Guilford Press.
- Ladd, G. W. & Troop-Gordon, W. (2003). The role of chronic peer difficulties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 problems. *Child Development*, 74(5), 1344-1367.
- Schwartz, D., Mcfadyen-Ketchum, S. A., Dodge, K. A., Pettit, G. S., & Bates, J. E. (1998). Peer group victimization as a predictor of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t home and in schoo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0, 87-99.

- Simons, R. L., Johnson, C., Beaman, J., Conger, R. D., & Whitbeck, L. B. (1996). Parents and peer group as mediators of the effect of community structure o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1), 145-171.
- Snyder, J., Brooker, M., Patrick, R., Snyder, A., Schrepferman, L., & Stoolmiller, M. (2003). Observed peer victimization during early elementary school: Continuity, growth, and relation to risk for child antisocial and dep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74(6), 1881-1898.
- Troop-Gordon, W. & Ladd, G. W. (2005). Trajectories of peer victimization and perceptios of the self and schoolmates: Precursors to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Child Development*, 76(5), 1072-1091.
- Wang, Q. Pomerantz, E. M., & Chen, H. (2007). The role of parents' control in early adolescents' psychological functioning: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Child Development*, 78(5), 1592-1610.

1 차원고접수 : 2009. 01. 01.
수정원고접수 : 2009. 02. 10.
최종게재결정 : 2009. 02. 27.

The externalization of problem trajectories
and parenting in victimized children in terms
of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Kyung-Eun Lee

Dept. of Child Welfare
Chung-Ang University

Ju-Rhee Lee

Dept. of Child Welfare
Chung-Ang University

Through an analysis of four-time period longitudinal data, this study examined the individual differences in victimized children's self-esteem and the externalizing of the changes occurring within problems. Additionally, the influences of parenting on the changes within victimized children's self-esteem, and the influences of these changes in self-esteem upon externalizing these changes in problems were investigated. The participants were 504 (boys 302, girls 202) victimized children from the 2004 (4th graders)-2007 (7th graders) panel data of the Korea Youth Panel Survey. The results were analyzed by means of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ing.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Individual differences of victimized children's self-esteem and externalization of changes in problems were significant. (2) Parenting influenced both the initial levels and slopes of victimized children's self-esteem. (3) The changes in self-esteem mediated the associations between parent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victimized children.

Key words : victimization by peers, self-esteem, externalizing problem, parenting